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www.museumhead.com

museumhead.seoul@gmail.com



전시 포스터 01 (포스터 디자인: 맛깔손, 포스터 사진: 안초롱)

《Seoulites》

정희민 개인전

2021.7.16.- 9.9.

뮤지엄헤드(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전시 소개

뮤지엄헤드는 2021년 7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정희민 개인전 《Seoulites》를 개최한다. ‘Seoulites’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 매달린 배달 오토바이, 널브러진 취객과 킥보드, 깨진 아스팔트와 그 사이에 핀 풀꽃, 골목의 고양이들과 올빼미 러닝족 등. 서울은 수많은 형상들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Seoulites》는 이러한 도시의 감상을 오늘, 매체의 자각으로 재송출한다. 낱알의 거주지가 한 데 모여 도시를 이루듯, 전시는 회화 매체의 여러 가능성을 제한된 프레임이 아닌 확장된 에피소드 안에서 잇따라 작동시킨다.

정희민은 캔버스를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 미디어, 오브제, 텍스트, 그리고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는 현장에 포개 놓는다. 전시장 앞마당 수반에는 <We Decide to be Synchronized>(2021)가 설치된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작품의 문구는 전시의 테제이자 선언처럼 등장하며 외부를 마음껏 반영한다. 작업은 가상과 현실, 오래됨과 새로움, 관념과 물질의 분열을 끊고 양극의 상태를 연동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를 제안한다.

전시에는 다양한 감각의 꽃들을 주 모티프로 삼는 회화 신작이 포함된다. <Overjoyed>(2021)를 비롯한 몇몇 회화 작업들은 전면화된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회화를 물리적 총체로 전달한다. 신작은 이미지와 물성, 가상과 현실의 대비를 하나의 통합된 현전으로 재구성한다.

전시에는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와 스크린, 오브제들은 회화 매체의 확장을 현실화한다. 회화와 함께 포착되는 <Mockup for the Gravestone 3>(2021), <Anchored Drive>(2021) 등의 작업은 전시에 시각적, 물리적, 기능적 경험을 더한다. 평면에 안착된 세계의 3차원적 모델링 같은 작업들은 무언가의 전경처럼 회화에 끊임없이 포개지며 이미지의 감각적, 경험적 확장을 만들어 낸다.

평면의 시야각을 확장하는 VR 작업 <Meditation101>(2021)은 관객을 또 다른 연동의 지점에 입장시킨다. 전시 동선 말미에 위치하는 작업은 전시 공간과 흡사한 가상공간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VR 속 공간은 관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동일한 현재로 제시된다.

전시는 여러 창작자들과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고립이나 완결이 아닌 관계의 중첩과 연속을 도모한다. 작가는 협업을 통해 2D부터 VR까지, 회화/이미지를 끊임없이 변환하며 그것의 인식과 기능을 재정립해간다. 안과 밖, 가상과 현실을 한 데 포섭하려는 시도는 회화의 평면과 그 바깥을, 다양한 양극의 세계를 하나의 ‘회오리’로 몰아세우는 일과 연결된다.

《Seoulites》는 이미 자리 잡은 시-공간의 이미지를 무감각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 합치될 수 없을 것 같은 세계들이 만든 오늘에 과감히 뛰어들어 모종의 당사자성을 획득하고 현재의 이미지를 자각해본다.

[보도자료]

전시 정보

정희민 개인전 《Seoulites》

전시기간: 2021.7.16. - 9.9.

전시장소: 뮤지엄헤드(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관람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협업 작가: 맛깔손, 안초롱, 강재원, 6-8(고휘, 조현서, 조지, 정윤수)

포스터 디자인: 맛깔손

포스터 사진: 안초롱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이기수

VR 협력: studio SOL

VR 자막 번역: 박진원

VR 구조물 제작: 박준영

도움: 손현선

진행: 허호정

글: 권혁규

주최: 뮤지엄헤드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 소개

정희민(b.1987)

정희민은 기술이 일으키는 형이상학적 사건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관찰하며, 기술 매개 사회에서의 자기동일성의 문제, 스크린이 제공하는 시공간적 불일치의 경험, 디지털적 정동 등을 평면 위에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풍경, 정물 등 회화의 관습적 대상들을 동시대적 시각 환경의 맥락 안에서 재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회화적

표현을 위한 전통적 재료들을 표면 위에서 모델링하는 비전통적 조형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한 실존 감각에 비유적으로 다가가며 물질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2016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이후 금호미술관, P21 갤러리, 인천아트플랫폼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그 외 국립현대미술관, 시청각, 금호미술관, 하이트컬렉션, 아카이브 봄 등에서 열린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보도자료]

전시 포스터



Seoulites
2021.07.16-2021.09.09
Heemin Chung
Solo Exhibition

Accompanied With
Kwon Hyukgue-Hur Hojeong-Mat-kkal
An Chorong-Lee Kisu-Kang Jaewon-Kohui
Cho Hyunseo-Joung yunsu-Jeoji
Park Junyoung-studio Sol-Son Hyunseon

MUSEUMHEAD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Opening hours
12:00 - 19:00
Closed on Sunday
and Monday

18 6 21
Support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roject in Chorong

전시 포스터 02 (포스터 디자인: 맛깔손, 포스터 사진: 안초롱)

공간 소개

뮤지엄헤드(대표: 유수진)는 2020년 12월 종로구 계동길에 문을 연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미술(관)에 광적인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다양한 매체가 전시를 대체하는 현재의 시공에서 물리적 현존으로서 전시와 큐레이팅에 집중하며, 여전히 전시를 만들고, 돌파하고, 갱신한다. 오늘, 서울, 새로움의 명멸을 보다 분명한 전시로 포착, 공유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삼는다. 뮤지엄헤드는 젊음이나 현재주의를 표방한 당대성과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당위성을 경계한다. 현재의 소개자, 혹은 역사의 중간자로 젊음과 새로움, 비주류를 중심으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공론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오늘, 서울을 시급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조명하고 탐구하는 작가들과 협업하며, 이들의 작업을 지원, 소개하는 전시와 출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의: museumhead.seoul@gmail.com